

# 대학 강의실, 스마트하게 바뀐다

### 전북대, 발전기금 등 총 15억7,400만 원 투입... 의·치·수의학 최첨단 의학계열공용관 새롭게 구축

전북대학교가 내달 초 개강을 앞두고 12개의 스마트 강의실을 개조하며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29일 전북대는 치과대학에 의·치·수의학 분야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최첨단 의학계열공용관을 새롭게 구축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새롭게 문을 연 의학계열공용관은 익산 특성화캠퍼스로 이전한 구 동물병원 전채를 최첨단 스마트 강의실로 리모델링했다.

이는 4억 원의 발전기금 등 모두 15억7,400만 원이 투입돼 총 31개 강의실 등의 시설이 구축되고 있고, 이 중 12개의 스마트 강의실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새 학기 학생들을 맞는다.

의학계열공용관은 스마트강의실뿐 아니라 의·치·수의예과 사무실, 학생회실, 휴게실, 라운지 등이 설치돼 있어 학생들이 학업과 휴식을 모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강의실 100실 도입 프로젝트가 50% 가량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강의실은 IT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첨단 강의실 개념을 뛰어넘어 교수·학생 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자동 추적 녹화시스템, 태블릿 PC 이용 환경 등이 잘 조성돼 있는 강의실이다. 이날 문을 연 치의예과의 스마트 강의실은 차세대 재직 교수와 동창회, 본부 등의 재정 지원으로 만들어졌으며,



“학생들을 위해 써주세요”

전북도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이 2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왕배 이태미국종합처리장 대표이사가 최병균 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삼천만원)을 기탁하고있다. 왼쪽부터 최병균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송하진도지사, 김왕배 이태미국종합처리장 대표이사.

치과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 모두가 가슴 따뜻한 치과의사로 성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아원 강의실'로 명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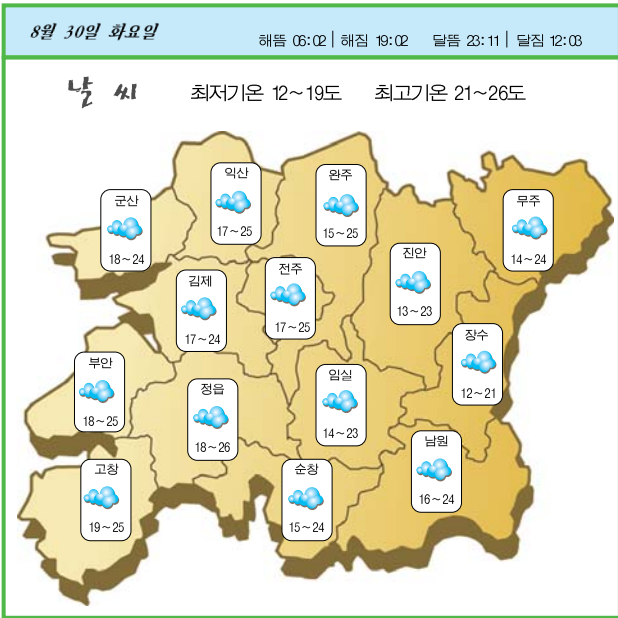
또한 의예과가 사용하던 214호 강의실은 '의'라는 질병의 걸 현상만을 보지 말고 생명의 뜻을 밝히고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당나라 손사막의 글을 따 '명의 스마트 강의실'로 이름 붙여졌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대학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 학과에 한 개 이상, 총 100개 이상의 스마트 강의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

인데, 많은 분들의 기부와 관심으로 벌써 절반가량을 구축하고 있다"며 "스마트 강의실 구축 노력이 계속된다면 현재 전국 4위 수준의 전북대학 교육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국방호 수석교사, 영생고 교장 선임

전주영생고등학교 교장에 실력과 덕망을 갖춘 국방호 수석교사가 선임돼 다음달 1일 취임한다.



국방호 교장은 취임에 앞서 "80여 년 전 믿음, 소망, 사랑의 기둥 교정신으로 복음전파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전주영생고등학교 이념에서 "그 이념을 바탕으로 정체성 조명, 학습 환경 조성, 그리고 수업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방호 교장은 지난 1981년 전주영생고에 부임 한 후 전북수석교사, 전북중등영어교사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익산 남성고, 전북대 영문과, 전북대 대학원 석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육부 장관상과 전북교육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영재 기자

## 도교육청,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모집·선발고사 일정

### 전주 23교 6,913명·군산 6교 1,674명·익산 7교 1,800명 등 총 36교 10,387명 선발... 12월 16일 실시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과 선발고사 일정이 확정됐다. 10,387명으로 확정되는 모집 정원인 1만3,887명 선발을 위한 고입선발고사는 오는 12월 16일(금)에 실시된다.

29일 도교육청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정원인 1만3,887명 선발을 위한 고입선발고사를 오는 12월 1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입학 전형요강에 따르면 전주 23교 6,913명, 군산 6교 1,674명, 익산 7교 1,800명 등 총 36교에서 10,387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모집정원(36교 11,681

명)보다 1,294명이 줄어든 것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당 정원을 전주 시 31명, 군산시 31명, 익산시 30명으로 줄인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전년도보다 급감하여 도내 고등학교 학생배치 적정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졸업자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평준화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고, 중졸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도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응시 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2

일까지 사흘간 출신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재학 또는 출신중학교에서 나이스(NIEIS)로 작성한 원서를 전북고입전형포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방법 원서작성, 학교 배정 방식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지원자는 해당 원서를 작성한다.

특히 전주시 학군 지원자는 배정권역인 '일반권역'과 '혁신도시권역'을 먼저 선택하는데, '혁신도시 권역'을 선택할 경우 1지망 학교는 자동으로 '양현고'가 되고, '일반권역'을 선택할 경우는 양현고를 제외하고 1지망부

터 13지망까지 선택하여야 한다.

3개 시 평준화 일반고의 학생선발은 내신(70점)과 선발고사(180점) 점수를 합산(250점 만점)하여 상위 성적순으로 결정하고, 합격자는 내년 1월 5일에 발표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배정은 성적 고려 없이 원서 작성 시 선택한 지망 순위에 따라 '선지원·후추첨'해 내년 1월 13일에 발표한다"면서 "한번 배정 발표된 학교는 어떠한 경우도 바뀌지 않기에 원서 작성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 한국민속예술축제 기념 맞이곳 '영고' 펼쳐져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공연 '영고(迎鼓)'가 29일 국립무형유산원 얼수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오는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의 개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연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얼수마루 대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끌어냈다.

처음을 불러내는 의식으로 시작된 '영고'는 축제를 마련한 주요 인사들의 헌액례로 축제의 시작을 하늘에 알렸다.

이날 무대에 오른 '영고'는 3D Screen-X로 제작되어 다시 한 번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총 2회에 걸쳐 서울에서는 9월 23일 밤 8시 강남 CGV에서, 전주에서는 10월 10일 저녁 7시30분 고사 CGV에서 상영된다. 이는 전통예술장르에서는 최초의 시도로서 전통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